

Publisher :

Jong Sung Kim

Editors :

Ginena Wills, Jennifer Oh

Editorial Board :

김중언, John Nuessle

Caroline Njuki, 장학범

김효식, Ginena Wills

고석천, Jennifer Oh

Published by

Hope5L2F Foundation

7-11 South Broadway, Suite 3

White Plains, NY 10601

866-967-5123 (Phone)

866-267-0788 (F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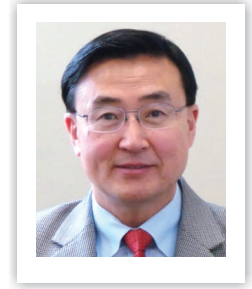
missionjournal@Hope5L2F.org

www.Hope5L2F.org



Publisher's Note

"선교와 Networking"



Hope5L2F 재단 대표
김종성 목사

2015년 선교저널 가을호의 주제는 “선교와 Networking” 입니다. Hope5L2F 재단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미주 한인 교회 사회에 “함께 하는 선교”의 운동에 적으나마 힘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여러가지 선교적 상황은, “혼자하는 선교”에 대한 한계성 (limitation)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의 상황적인 현실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역들이 요구 됩니다. 또한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study,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plan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도자 양성과 교육,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 신앙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인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변화 (transformation)의 중심적인 주체 (agent)가 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선교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선교적인 요구와 도전은 “multi-dimensional approach”가 필요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하는 선교”의 한계성 (limitation)은 효과적인 자원 (resources)의 사용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선교적인 상황은 “혼자하는 선교”로는 시대적인 선교의 need들을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칠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의 참여와 복음화를 위해, “혼자하는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함께하는 선교”로 우리들의 신앙적인 시각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Singapore 감리교회 주재 감독이셨던 Robert Solomon 감독님이 들려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 “1”과 “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개의 “0”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보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많은 “0”들이 모여도 그들의 가치는 계속 “0”밖에는 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백개의 “0”들이 숫자 “1”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숫자 “1”)를 만난 신앙인들 (숫자 “0”)이 모여서 함께 일하게 될때 주어지는 놀라운 “가치”와 “힘”에 대한 예 (example) 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선교저널 가을호 초대 칼럼을 맡아 주신 이세형 박사는, 선교를 “소통”의 lens를 통해서 새롭게 신선하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lens를 통해서 본 선교를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며 연합”이라고 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를 하는자”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선교를 받는자”들과의 연합도 될 수 있어야 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선교는, 모든 주체들이 - 선교를 하는 자와 받는자 - 동등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것임을 remind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선교”를 위한 Networking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돈식 박사

선교와 신학

우리가 “선교”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들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거나 단기선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신학”을 한다고 하면 학문적인 사고의 체계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 선교와 신학은 병행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일까? 선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회들이나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 활동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역 자체를 의미한다.

In academic circles today missions (with the final s) is the word used for the specific task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It is seen through the work of mission agencies, churches, and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sense it is the traditional term. One other han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ission (without the final s) has been used more broadly than missions. It refers to everything the church does that points toward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missioDei) 라는 선교신학 (missiology)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다.

선교 (mission)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친히 하시는 선교’를 의미하고, 라틴어의 missio Dei (Mission of God)에서 유래되었다. 어원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sending)는 의미 뿐만 아니라, 헬라어의 pompein (to send) 그리고 apostellein (to send forth)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선교사” (missionary)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 (apostolos)를 의미하고, 사도들의 주요 사역은 “보냄을 받은” (apostle)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다. 이런 면에서 선교는 주로 봉사 혹은 섬김(service)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된다.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봉사 사역을 살펴볼 때 이러한 면이 더욱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Public ministry)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참조. 누가 4:18-19),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이 선교의 근본 목적임을 깨우쳐 주신다. (참조. 요 16:5, 20:21)

그러므로 선교는무엇보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 (ecclesiology)과 예수 그리스도의구속사 (Salvific works)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통한 메시아적 사명을 표현하는 면에서 선교와신학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정용 박사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역설한다. “Theology is autobiographical, but it is not an autobiography... It is the story of my faith journey in the world.” (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Fortress Press, 1995). 왜 그럴까? 신학은 단순한 학문적인 체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때에만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 경험을 유추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친히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의 성육신 (incarnation)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오늘도 교회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도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임하도록 우리를 그 선교 현장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쉬지 말고 증거해야 하겠다.



Rev. Don Sik Kim, Ph.D
Former E. Stanley Jones Professor of Evangelism,
Congregational Leadership, and Theology
Former Director of Asian American Ministries Center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Evanston, Illinois
Earned degrees from Drew University (M. Div., S.T.M., Ph.D)

선교를 위한 묵상



고석천 목사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세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의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언어와 문화와 종족의 차이를 넘어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다. 고 이태석 신부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이였다. 고 이태석 신부의 추모 영화와 그의 일생에 관한 책을 읽으며 그의 헌신적인 삶과 겸허한 죽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미 그는 우리 곁을 떠나 기억에서 멀어져 가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 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태석 신부(1962.10.17- 2010.1.14)는 부산에서 10남매 중 아홉 번째로 태어났다. 부산 영도 성당을 다니던 중 초등학교때 다미안 신부에게서 영향을 받고 신부가 되기를 결심했다.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집단 격리되어 살고 있는 Hansen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결국 자신도 환자가 되어 일생을 마쳤던 분이였다.

인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임기를 마쳤다. “돈 보스코”에 깊은 영향을 받고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며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다. 광주 카톨릭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하던중 남부 수단에서 사역을 하는 신부를 만나 남부 수단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남부 수단 사역에 관심을 가졌다.

신부 서품을 받은 후 아프리카 남부 수단에서 사제로 외과의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수단은 오랜 내전 후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을과 교회를 초토화 시키며 주민들을 학살했다. 심한 기근으로 영양결핍 뿐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만연하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 갔다.

이 신부는 남부 수단 와합주의 Tons 마을에 의료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 병원 원장으로 사역을 했다. 매일 수백명의 환자들이 몰려 들었다. 특히 나병환자들을 돌보며 부러진 발에 신을 신겨 주었다. 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며 미래에 대한 꿈을 불어 넣어 주었다.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을 때 이 신부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듣게 하고 음악을 가르쳤다. 우물을 파고 고아원을 만들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았다. 삶과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8년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았다.

한국에서 이 신부의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병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Tons 에 보내어 사역을 도왔다. 이 신부가 휴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하고 선교보고를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신부님은 가장 위험한 남부 수단으로 가셨습니까?” 이 신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부 수단에 사역자가 필요한데 아무

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라도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신부가 작곡한 노래에도 그의 섬김의 정신이 잘 드러나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오직 사랑, 사랑, 아직 사랑 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평화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신부는 2008년 11월에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정기 검진과정에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의 질병소식은 본인은 물론 후원자들에게도 청천벽력이었다. 그러나 이 신부는 자신의 병을 걱정하기 보다는 아프리카에 남겨두고 온 일로 고통스러워했다. ‘우물을 파다 말고 왔는데, 열흘 후에 수단을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16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 지인들로 부터 아프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니라고 웃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다가오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돈 보스코” 사람들을 축복하며 평안히 임종을 했다.

그의 갑작스런 임종소식을 들은 수단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다. 눈물을 좀처럼 흘리지 않는 그들이지만 이 신부의 영정 사진에 입을 맞추고 슬퍼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 신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기대한다. 절망과 미움의 땅에 희망의 밝은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의 환한 웃음이 평화의 강물이 되어 황폐한 땅을 적시고 넘쳐나기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대학원, 두루신학대학원(미국 뉴저지)에서 수료, 연합감리교 대 뉴저지 연회에서 사역 후, 은퇴하고 뉴욕에 거주한다.



진세관 담임목사

노크로스한인교회 이야기

저희 노크로스한인교회(Korean Church of Norcross UMC)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세워진 교회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역의 1.5세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교인의 90%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러한 청년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배와 셀, 그리고 여러가지 제자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역은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의미로서 두개의 선교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해외나 타주에 있는 선교사님과의 협력선교사역입니다. 협력선교사역은 주로 선교비 후원과 단기선교, 그리고 초청사역으로 되어 집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협력선교지는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원주민 선교와 중국과 몽골입니다. 매년 하나의 선교지를 확장하려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매해 1월에 모든 교인은 자신이 후원할

선교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자신이 정한 일정금액을 헌금하게되며 이 선교헌금은 지정된 선교지로 전액 보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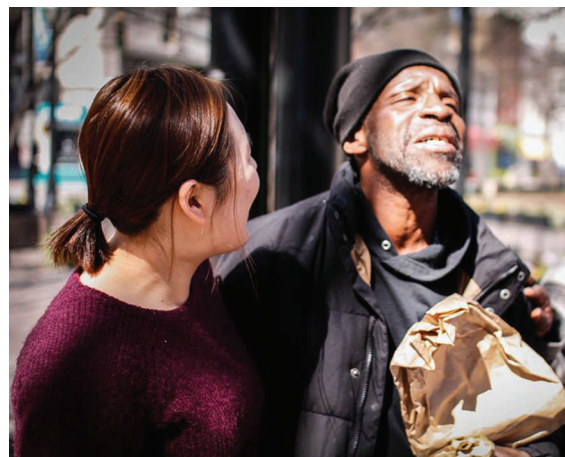
단기선교 또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선교사역입니다.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며 선교의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아이티, 그리고 애리조나 호피원주민 선교지에서 단기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호피원주민 선교

단기선교의 형태는 현지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여름성경학교, 건축, 연합집회등이었으며 선교의 마음을 익히는 비전트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방문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지의 필요에 따른 연결사역을 이어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사역입니다. 2012년 중국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현지 조선족 목사님 사역을 더 돕고 이해하기 위해서 2013년에는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초청하여 선교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온 교인이 중국 선교에 대한 더 깊은 필요성과 공감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으며, 동시에 그 목사님에게는 재교육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012년, 2014년 두번의 호피 원주민 단기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호피 청소년에 대한 선교와 돌봄사역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5년에는 호피 청소년 12명을 애틀란타로 초청하여 7박8일 비전트립을 실시했습니다. 10여명의 청년들이 휴가와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동행하며 멘토링을 했습니다. 함께 한 프로그램은 캠핑과 대학방문, 아쿠리아옴과 아이스 스케이팅등 호피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도 꼭 필요했던 효과적인 사역이었다고 매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와 예배 및 성경공부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의 대학(조지아텍, UGA)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캠퍼스를 확장하려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한달에 한번 샌드위치점을 만들어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을 방문합니다. 단순히 샌드위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여명의 청년들이 찬양을 연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한사람씩 만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아가고, 기도제목을 교회에서 나누며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에는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care package 를 만들어 나누는 사역도 합니다.



길거리선교

두번째 선교사역은 지역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성상 두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캠퍼스 선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캠퍼스에서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매년 선교지 후원을 위한 일일 선교바자회도 좋은 영향력을 교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역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바자회는 수익과 더불어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선교바자회의 주제를 그 해 수익금이 보내질 선교지로 삼아서 진행함으로 선교지를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아이티 고아원 사역에, 2013년에는 중국 복음신학교에, 2014년에는 호피 예배당 건축에, 그리고 2015년에는 호피청소년 초청에 모든 수익이 전액 사용되어졌습니다.



중국선교

선교헌금만 보내는 선교사역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협력사역으로서의 선교가 우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사역의 원칙입니다. 또한 지역선교의 장을 확대함으로 청년들이 직접 선교와 봉사, 나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선교의 마인드를 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짧은 교회의 역사와 넉넉하지 않은 교회의 재정상황이지만 매년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러한 선교사역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하나님 마음을 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적으로도 귀한 축복이 되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동력이 되고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대학원 졸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목사안수
2007년 데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
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이세형 박사

소통으로서의 선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추석 연휴인 9월 28일 서울의 한 복판에서 김종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서로는 깊은 공감과 감동으로 그 동안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정년에 앞서 자원은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한 선교사역의 면면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들은 선교의 역사는 섬세하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풍요롭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교에 대한 초대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감히 선교를 소통(communication)이라 말 속에 담아 초대의 칼럼에 답하려 합니다. 소통의 신학적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 친교(communion)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교제입니다. 소통과 나눔과 연합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 때문이지요. 온전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을 또 다는 너와 나누는 관계 속에서 구현됩니다. 이것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구별되었으나 하나 됨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은 나를 넘어 너에게로 향합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닙니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넘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변화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고 돌아 내려가며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키워가며 서로 나누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너를 너로서 세워주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을 받아

사랑을 합니다. 먼 곳까지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이 깊어서입니다.

선교를 소통이란 말에 담아보면 우선은 들음입니다. 들음은 말함보다 먼저입니다. 들음과 말함은 모두 말에 속합니다. 말이 있어서 말이 들려지는 것이고 들려진 말이 있어서 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내어주어야 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능동적인 일입니다. 선교는 말함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음 없이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침묵 없이 말은 탄생되지 않습니다. 들음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듣고 외로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깊

이 들어보면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피조물의 소리를 들리고 그 고통의 끝자락에 울고 계시는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음이 말이 되어 도전해 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선교사들은 깊고 깊은 곳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담긴 자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명령의 따라



훈련받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나섬은 이처럼 깊은 들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듣고 받은 복음과 구원은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헨리 나우웬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지만 스스로가 찢기고 나누어져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아 포부를 키워온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상을 갖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받았으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서 주는 것인데 주는 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받음으로 주고 주니 받게 되는 영적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소통이란 들음으로 말하고 말함으로 들읍니다. 선교는 받음으로 주고 줌으로 받아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가가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모두를 주체 되게 합니다. 이웃에게 멀리 나아가 복음과 사랑을 전한다고 하여 전하는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와 너입니다.

선교는 이미 받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것처럼 너에게도 임하게 돕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로서 도우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기 전 이미 저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

입니다. 소통은 너와 내가 모두 주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자-선교를 받는 자'의 구조에서 주인은 선교를 받는 자입니다. 선교는 전하는 자의 속도와 생각으로 움직여져서는 아닙니다. 과잉 사랑은 언제나 결여를 만들어냅니다. 선교의 자리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리입니다. 생명은 죽어야 탄생됩니다. 속도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찬찬히 해야 합니다. 너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너를 배려하는 여정으로 너를 배우는 삶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너에게 돌려주고 너의 형편에서 너의 속도로 너의 필요에 응답해 주는 돌아가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고 선교지에서 만난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선교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선교의 과제와 이상은 선교지에서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너가 주체가 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과 몸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공감이란 합리적 의사소통입니다. 선교는 합리적 공감으로 생명의 삶을 나누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소통으로서의 선교는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며 연합입니다.

연합은 비움이고 내려감이고 돌아감입니다. 비우고 내려가 너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하기 전 저들의 전통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저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은은히 경험되도록 적극적 듣기와 안아주고 담아주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와 더불어 깊은 소통의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드류대학교 철학박사(조직신학),
미 뉴욕연회 더함 오길 연합감리교회,
밴 코틀랜드빌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역임,
현재 협성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사진으로 보는 선교지

Missions in Picture



Rev. Dr. David W. Clemente



Free Methodist World Missions

Connecting With God

“Dad,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missionary,” Daniel Lo tells his father. Daniel is only eleven years old and is the youngest member of this year’s mission team from Taiwan. We are in Yangon, Myanmar for ten days to visit Free Methodist work in the country, helping in different children’s ministries and painting the walls of a Bible College (school). There are 20 of us from Kaohsiung, Taiwan. Twelve members are from a seminary where I teach, and eight are from one local church in the Kaohsiung area. Daniel and his father are members of this local church. “Dad, when there is another mission trip to Myanmar,” Daniel continues. “Can I go again?”

My name is David Clemente, a professor at 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 (HLTS) here in Kaohsiung, Taiwan. I am a missionary with the Free Methodist World Mission (FMWM), USA, sent to Taiwan to teach missions and theology courses at this seminary. Every year, I organize mission trips among our students and their friends to visit and connect with different areas of Free Methodist work in Asia. This past February, we went to Yangon, Myanmar. We visited Chin, Burmese, and Chinese people residing in the city of Yangon.

“Their smiles are melting my heart,” members of this team remark about the children in Yangon. We visit a Burmese Childcare Center of 30 or so children ages 5-7 years old. The children are happily participating in hand craft activities, coloring pictures and constructing bright red Chinese characters with their nimble fingers. “I do not know what they are saying,” the Taiwan team members share to each other. “But their smiles and enthusiasm speak of God’s love.” It is obvious that the Taiwanese visitors are having a wonderful experience with God’s work in Myanmar.

We also visited Free Methodist work among the Chinese community in the city of Yangon. We crossed the Yangon River riding on a ferry boat. We traveled across the countryside on a three-wheeled bicycle ride. We ministered to twenty or so

children from a poor neighborhood and crammed ourselves together with them in a small 20x10 square foot room for a time of singing, drama, and Bible stories. We encountered God through the people we met in these small congregations here in Myanmar.

The Free Methodist Church (FMC) is a world church. It is in 85 countries across six continents. This denomination started in 1860 in New York, USA, but has its roots in the Methodist revival movement from England. Now we have about 80,000 members here in the USA and more than 900,000 around the globe. FMC is evangelical in its persuasion. Moreover, it is a tradition that is serious about its missionary calling to “bring wholeness to the world” through its many ministries. It sends cross cultural workers and missionaries through its



sending agency, the Free Methodist World Mission (FMWM), and sponsors children around the world through its ICCM (International Child Care Ministries) organization. It partners with other churches and missions agencies through its Set Free Movement (SFM) group, with the aim

of rescuing slave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restoring these people to full humanity. Free Methodist congregations and their members around the world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ecause of their love for God and commitment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Now I know how to pray for the Free Methodist work in Asia,” one of the Taiwan members tells me. “Pastor David, now I know what you were talking about in the classroom,” another member shares to me. “Because, here in Yangon, I have talked to a Burmese pastor, I have cuddled a small child, and I have seen God’s work with my own eyes.” God’s connection is right before us.

In so many ways, our experience in Myanmar is a microcosm of the Free

the world. God is using many Free Methodists around the globe for the building of His kingdom.

Currently, Free Methodist missionaries are going from Brazil to a few Asian countries. Filipino Free Methodists are being sent as Christian cross cultural workers to Hong Kong, Cambodia, Pakistan, and other restricted countries. Taiwanese FMC members are sponsoring children from Haiti through ICCM. Free Methodists from India are rescuing children in Nepal through its SFM local group.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many ways God is using Free Methodist people in the world.

In the same manner, FMC of Myanmar is participating in world missions for the Lord’s work. From its small Bible College in Yangon, FM leaders are

suffering families. God is working in Myanmar, just as He is working in other countries, bringing many Free Methodists to join in His harvest in the world.

My prayer is that many more Free Methodist Asians will answer God’s call for more workers in His harvest field. When Jesus said not to hinder the children from coming to him, he is talking about more than just their innocence and qualifications to enter God’s kingdom (Matthew 19:14). I think Jesus was also referring to the children’s ability to grasp the calling for missions work; God’s work of bringing wholeness to the world. Many Asian children are ready to say to our Lord: “Jesus, when I grow up, I want to be your missionary.”



Methodist missionary work around the world. We are in Myanmar not only because we want to offer our help to others or to receive spiritual blessings from our fellowship with the local people, but also because we want to see for ourselves what God is already doing in the country. God is at work in

sending their students to India for summer missions work across the border to Mizoram. One of its orphanages is strategically located in the borders of Thailand to help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Free Methodist childcare centers are present in major cities to minister to needy children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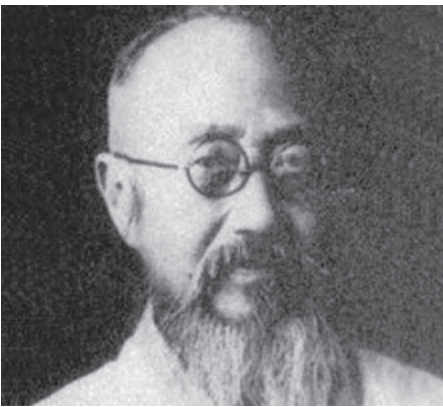
Rev. Dr. David W. Clemente is a professor of 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 (HLTS), Missionary at Free Methodist World Missions, with Doctorate of Missiology from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인물로 보는 선교역사



장춘식 목사

조선 남감리회의 창설자 윤치호



미북감리회가 한국에 첫 선교사들을 파송한 때는 1885년이였다. 미남감리회는 그보다 10년 늦은 1895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선교를 개시할 목적으로 동양 선교지역을 총괄하던 헨드릭스(E. R. Hendrix) 감독으로 하여금 한국을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헨드릭스 감독은 리드(Clarence Frederick Reid) 선교사와 함께 1895년 10월 13일 제물포를 통해 내한했다. 당시는 1893년 청일전쟁과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가 발생했던 직후여서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여행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환대와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종황제와의 면담을 통해 “좋은 교사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우리 백성을 깨우쳐주시오”라는 요청을 받고 고무되어 미남감리회의 한국선교를 결정했다.

그들은 곧바로 미북감리회 의료선교사 스크랜턴(W. B. Scranton)의 협조로 남송현(현 한국은행 자리)에 선교 부지를 매입한 후 10월 21일 상해로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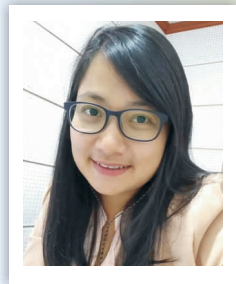
미남감리회는 한국의 첫 개척선교사로 그동안 중국 선교사로 경험을 풍성하게 쌓았던 리드를 임명했다. 리드는 1896년 5월 단신으로 입국해서 선교를 개시했고 그 해 8월 14일 가족 모두와 함께 정식으로 내한했다. 미남감리회는 다음 해 역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콜리어(C. T. Callyer)와 캠벨(J. P. Campbell)도 파송해서 리드의 한국선교를 지원했고,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한 교회로 합동하고 조선감리교회를 태동하게 될 때까지 미남감리회 선교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미남감리회의 한국선교 시작과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좌옹 윤치호(尹致昊, 1865. 11. 20-1945. 12. 6)이다. 윤치호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다음 해 1월 상해로 망명해서 미남감리회가 운영하던 중서서원(Anglo-Chinese College)에 입학해 공부하던 중 1887년 3월 4일 본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윤치호는 그렇게 해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윤치호는 그 후 1888-93년 밴

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5년 동안 유학생생활을 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 “나는 행해야 할 선교가 있다…… 그 선교란 내 겨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었는데 귀국 전 에모리 대학 총장 캔들러 박사에게 200불을 맡기며 한국에도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1895년 2월에 고국에 돌아 온 윤치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중서서원의 알렌(Young J. Allen) 박사, 캔들러 총장, 그리고 헨드릭스 감독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미남감리회의 한국선교를 간곡하게 요청했고, 그의 그러한 호소와 간구는 마침내 1895년 10월에 헨드릭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의 한국방문을 통해 응답받게 되었던 것이다.

1895년 10월 헨드릭스 감독 일행이 내한했을 때 당시에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윤치호는 그들이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선교 허락을 받도록 주선했다. 윤치호는 1884년 6월 내한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한국 선교를 윤택해줄도록 신청할 때도 당시 미국 공사였던 푸트의 통역관으로 수고했었다. 윤치호는 그 후 미남감리회 개척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고양읍 교회, 광희문 교회, 종교교회, 자교 교회를 설립했고, 수표교 교회, 원동 교회, 용산 교회, 신설리 교회, 수철리 교회 등을 개척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또한 송도지역에 한영서원(송도고)을 세웠고, 호수돈 여고, 남성 병원, 배화여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남감리회 선교의 기틀을 확립했다. 교회가 윤춘병 감독은 윤치호를 가리켜서 “좌옹은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아 키우듯… 남감리교회를 품에 품어 키웠고 1930년에는 조선감리회를 창립하여 품에 안아 키운 장한 어머니였다”라고 평가했다.

대한 기독교 감리회 은퇴목사, 배재 대학교 교목 실장으로 사역하며 한국에 학원 목회화 정착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함.
드류 신학 대학원 (석사)와 호주 시드니 대학 (Ph. D) 졸업



Seng Tola



- Matthew 5:13 -

A call to make a difference!

Two years ago, I received a scholarship to pursue a graduate degree in South Korea. Leaving my family in Cambodia behind and residing in the developed country like Korea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decisions I have made in my life. My husband and I prayed about it. Although we knew it would be hard for both of us, we knew God is always with us, and I knew He called me. His grace is so abundant to me so I just had to trust and obey.

When I look back at my life, I can see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Growing up in a country where the dominant faith is Buddhism, many times I felt isolated or humiliated just because I am a Christian. My classmates told others that I was brainwashed. I once was reluctant to say that I am a Christian. I thank God that He is always by my side. All of my friends know I believe in Jesus. I shared the gospel with them. I praise God that through me they can hear the truth.

The word of God tells us "we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3-16). In other words, He calls u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hen I was young, my dream was to be a doctor. I thought

that was the best way to help people. However, God has led me in another direction. I got my undergraduate degree (B.Ed.) in English. That brought m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GBGM) in Cambodia as a translator. While I was working there, I worked with a lot of mission teams to serve the people in Cambodia. Though my role was just to be an interpreter, I could still feel the Cambodian people's need for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growth. I was moved by the heart for mission that all of our brothers and sist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had. Because of their love of Jesus Christ, they came from so far to work for the people in Cambodia. Building churches, and schools, digging wells, providing training and so on - all this has been done for the benefit of the village people. This picture led me to wonder, "as a Cambodian and a follower of Christ, what more can I do?"

In Cambodia, there are still many children who drop out of school for economic reasons. Schools are so far that they are not able to access them. Medical care and health services are still so insufficient. Many family still

survive less than \$2.50 per day. Above all,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has yet to meet God. The message of the salvation needs to be brought to them. And, along with their spiritual needs, they also need the support for their physical welfare.

Sometime, I try to negotiate with God, saying I am not smart enough and there is too much to be done. The issue is too big and complicated and there often seems to be no solution. But later, I realize that it is because I look at the situation from on my perspective only, not His. I have learned what all I have to do is just trust and follow Him step by step. I believe that when He calls, He will always pave the way for us and prepare us for His plan. Though it may not be comfortable or easy, it is always an amazing one journey, for He is always on that path with us.

Currently, I am serving as an interpreter from Korean to Cambodian language during a worship service. I was so worried the first time. However, now I find joy in using my talent to serve Him. It is by His grace that I was able to serve the Cambodian people who are working in Korea and be able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them.

God is calling all of us to join Him in His mission. There is no limitation to your age, education, wealth and whatsoever. What does matter is that you respond when He calls you. Can we just stay in our comfort zone and still claim we are serving God? Isn't there something in your heart yearning for you to do something for Him right now? As a believer, we experience that calling. I pray that we will not miss the chance when the Holy Spirit calls us to act.

Seng Tola is currently pursuing her master degree at Ewha Womans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child welfare.



By Dr. Caroline W. Njuki

MISSION AND NETWORKING

Creating Networks in the Community and World: Inviting Participation in mission by Non-Church Partners and or Unchurched Persons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UN) met to review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et in 2000 in an attempt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These included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hunger, universal education, gender equity, maternal health, childhood mortality, combating HIV, Malaria, and other diseases, environmental integrity, an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Much was achieved but lots needs to done. Seventeen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set in September including: **"Revitalizing global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goals mirror the referenced Theme of inviting participation in



Dr. Ronald Kaluya

development or mission across the denominations and around the globe to address societal needs. The SDGs could have been borrowed from a church mission statement. Dinesh Suna the Coordinato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cumenical Water Network says that the 6 billion global believe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popularizing the SDGs by engaging members in prayer and action, and that "it's a moral imperative to end extreme poverty". Dr. Ronald Kaluya's story demonstrates successful model of local and global networking and participation in mission.

Kaluya is married to Ronah and they have two children. He received a D. Min. in Global Health and Wellness, and a double Masters degree in Ministry and Counseling. His educat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church contributions to the scholarship program in the USA. Kaluya was an accountant when he felt the call to serve God. He wanted to reach out, especially to the unchurched by showing God's love and offering a better life. On returning home, he created the Uganda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s (UCSS) with a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remote communities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counseling and spiritual development. UCSS's goal is to help each community become self-sufficient.

UCSS's chose to start its mission in the wilderness of Bulike because its 48,000 residents were mainly unchurched, lacked clean water, medical care, schools, electricity and a sewage system. Ronald's first visit to Bulike was that of disbelief. The dirt road leading to the village was impossible to drive





through due to the high grass. His team had to clear a waist high thicket to build a semi permanent structure that served as a school/church. Hardly anyone believed in his vision.

Four years later, Bulike Community School with 574 pupils, 308 boys, and 266 girls is thriving. Children attend school but pay no fees except contribute nominal fees for their meals; a medical facility with outreach programs serves over 500 patients a month; five water wells have been drilled; seven-

teen economic empowerment groups started; a model farm for income generation as well as training farmers started; and seventeen bible study groups established.

Approximately 60% of the children can read. Adult classes have improved parents' literacy from 5% to about 40; medical care is free; mortality rates have been cut by 85%; and 4,000 people have accepted Jesus. Progress has been remarkable despite a few challenges such as resistance to new

ideas, traditional attitudes, remoteness of Bulike and insufficient manpower to cope with needs of the project. The church trained Dr. Kaluya who has successfully used his talents to carry out mission through local and global networks.

An educator and advocate for gender equity for the last 20 years, Dr. Caroline Njuki has worked with the church, NGOs, the U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he also served as an Associate General Secretary with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 **Publisher's Note from P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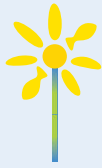
“Mission and Networking” is the theme of the 2015 Fall issue of Mission Journal. In today’s world, mission engagement is such that no one entity, how much resources it might have, can success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it due to the complexity it requires. Today,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requir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order to make an impact on the lives of new Christians and resource them to become members of viable faith communities in the mission fields, we need to provide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educational and nurturing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to raise the quality of their lives, mechanism to enable them to become agents of transforming their own communities, etc.,. These are a few examples of mission engagement that are required for mission development.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Network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strategy for mission engagement. In order to meet challenges for more effective mission development in mission fields, building coalitions among practitioners of mission and developing partnerships with other mission entities are becoming very crucial.

Bishop Robert Solomon, a former presiding bishop of the Singapore Methodist Church, once told a story about number “0” and “1.” Hundreds of “0” gather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and special. However, no matter how many “0s” gather, their value was still “0” and they were not able to do anything. However, when these “0s” met with number “1,” their value skyrocketed. The story demonstrates the fact that possibilities are limitless when we (0s) are met by Christ (1). In my view, it is also a wonderful illustration that reflects the “power of many.”

Making A Difference



HOPE5L2F

Foundation 사업 소개



Hagar International

*"Whatever it takes for as long
as it takes to restore a broken life!"*

As part of the effort to combat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in Vietnam, Hagar International has been committed in restoring lives of hundreds of women and children coming from extreme disadvantaged backgrounds since 2009. What sets Hagar apart is that the organization walks with each client individually throughout their whole journey of recovery and reintegration, from the first day a client steps out of the dire situation until they are able to make a living, support their family and live independently and happily.

Studies have shown that most Vietnamese women who have been trafficked come from poor and uneducated rural families with few opportunities for skilled employment. This, among other factors, put women and their children at greater risk of domestic violence and other types of abuse.

In order to break the cycle of abuse and exploitation, women must be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new skills, to be gainfully employed and to be able to provide for their own families. Hagar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women's being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this is the reason why one of Hagar's core programs is economic empowerment.

After going through trauma counseling and personal well-being training, clients who are ready physically and emotionally then transit to economic empowerment. The wide range of services offered by Hagar including catch-up education, career counseling, business skills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and microcredit/microenterprise makes sure each individual not only lands safe employment but more importantly, understands what they really want in life and what it takes to succeed with their choice.

With the generous contribution from the Hope 5L2F Foundation, along with other funds, Hagar has been able to bring in opportunities for the clients and do anything necessary to get them ready for a new successful part of their life.

Quyen, a 17-year-old girl who was sexually abused by her boyfriend at the

age of 14, found her way to Hagar through the local authorities. By exposing her to various career orientation sessions at different businesses, Hagar helped Quyen to find out her special interest in cooking. Hagar then connected with the local community to enroll her in different intensive cooking training courses. Just as things started looking up for the young girl, she was once again sexually harassed which drove her to relapse into her psychological trauma of being abused in the past.

It was then Quyen went back to Hagar for a period of counselling and as she recovered, she was determined once again to pursue her cooking passion. Hagar, who never ceases in making efforts to restore broken lives no matter how hard it is, once again succeeded in enrolling her into a six-month training at a five-star hotel chain in Hanoi, paving the way for her to become a baker.

Hagar also supported a woman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 mother of six children by working with her to start a vegetable business in her hometown. Temporarily Hagar is providing funds towards her children's education to make sure she has enough economic resources to support her family. "I've been up against many

obstacles in life and Hagar has helped making things a bit easier.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and for staying by my side”, said the beneficiary.

In addition to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Hagar also helps other disadvantaged groups. For instance, recently a one-week business skills training was offered to a group of single mothers living in a rural area. These women did not only learn basic business skills but also got a chance to visit a long-standing embroidery business. Following the visit, some of them were offered free on-the-job training and employment by the company’s manager.

Economic empowerment has alway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at Hagar because Hagar sees the bright shine in these women and girls’ eyes when they are given opportunities to pursue what they want in life and their sparkling determination to make their own decisions. This is the reason why Hagar exists.

Thanks to Ms. Kerry Kelly, Country Director and Ha, Development Manager at Hagar, Vietnam for contributing this article.



Hope5L2F 재단은 월남에 있는 Hagar International 재단과의 협력선교를 통해 강제로 인신매매의 고통을 받고 아픔의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어린 여성들은 월남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고,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여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역들 중에는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Counseling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17살 나이의 구웬은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많은 학대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Hope5L2F 재단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Hagar International 재단은 구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Counseling을 통한 정신적인 치료와 또한 요리학원에 보내 빵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구웬은 월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5성급 호텔 (5 star)에서 6개월간의 인턴쉽을 하고 있는데, 인턴쉽이 끝나면 그 호텔에 Baker로 취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AGAR
the whole journey



Hope5L2F Foundation is a 501(c)(3) charity and your contribution is fully deductible according to IRS rules and regulations.

100% of your donation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you designate.

www.Hope5L2F.org

I (We) would like to support the Hope5L2F Foundation as follows:

- Development Projects (Economic Development and Micro-Enterprise)
- Publications (Mission Journal, Training Manuals, Brochures, etc.)
- Leadership Development (Scholarships, Leaders Training, etc.)
- Program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Meetings, Consultations, etc.)

\$10 \$50 \$100 \$300 \$500 Other \$ _____

Please send your donation (payable to **Hope5L2F Foundation**) to:

Hope5L2F Foundation
P.O. Box 8238, White Plains, New York 10602-8238

Vision

As a Christian organization, the Hope5L2F Foundation (Foundation) will primarily work with Christian faith communities and NGOs to improve human lives and economic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jor objectives of the Foundation shall be 1) to alleviate poverty among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means of microcredit enterprises and economic developments, 2) to create job opportunities for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sustainability through business ventures, 3) to develop systematic ways to educate local persons especially for young women and men for entrepreneurship.

함께 만들어 가는 "선교저널"

"선교저널"은 미주 한인 교회들의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저널"의 목적은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성서적 이해속에 건강한 선교 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선교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개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하는 일에 기여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Hope5L2F Foundation is a 501(c)(3) charity and your contribution is fully deductible according to IRS rules and regulations.

Hope5L2F 재단은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단체(NGO)로 인정 받아 501(c)(3)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Hope5L2F 재단으로 보내 주시는 헌금은 IRS의 법규에 따라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헌금하신 금액은 지정하신 사역을 위해 전액(100%) 사용됩니다. Hope5L2F 재단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additional copies of Mission Journal, please contact us at missionjournal@hope5L2F.org

"선교저널" 책자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missionjournal@hope5L2F.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ope5L2F 재단은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단체(NGO)로 인정받아 501(c)(3)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Hope5L2F 재단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의 법규에 따라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헌금하신 금액은 지정하신 사역을 위해 전액 (100%) 사용됩니다.

www.Hope5L2F.org

Hope5L2F 재단의 사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헌금합니다.

- 지역사회 프로젝트 개발 (Economic Development & Micro-Enterprise)
- 자료 개발 (선교저널, 훈련 교재)
- 지도자 및 지도력 개발 (장학금, 지도자 훈련)
- 사역 개발 (선교 세미나, Networking)

\$10 \$50 \$100 \$300 \$500 기타 \$ _____

Hope5L2F 재단을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체크는 **Hope5L2F Foundation** 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Hope5L2F Foundation

P.O. Box 8238, White Plains, New York 10602-8238